

HR 유통, “가격 인상 적용 어려워”

6월도 수익 확보 어려움

7월 가격 인상 적극 예상

열연강판(HR) 유통업체들이 6월 들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섰다. 실제 판매가격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통업체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격 인상 시점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6월 들어 포스코 가공센터와 현대제철 판매점은 톤당 3만원 수준 가격 인상에 나섰다. 그러나 6월에도 판매가 크게 살아나지 않으면서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제철 판매점은 6월 초 톤당 75만원까지 호가를 인상했지만 현재 유통가격은 이보다 낮은 톤당 73만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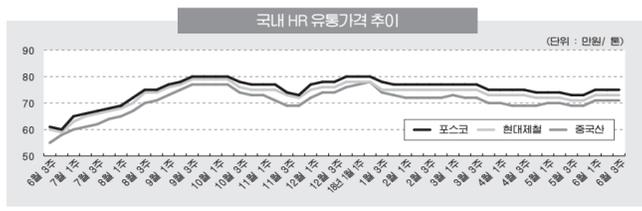
게다가 5월에 6월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2차 유통업체들이나 실수요업체들이 미리 구매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6

월 판매 감소까지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6월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가격 인상이 예상처럼 나타나지 않으면서 수익도 거의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도 유통업체들은 가격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어 7월에도 유통할 출하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도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그러나 7월부터 무더위와 장마 등으



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 6월처럼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호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5월과 비교해 6월에도 수요는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

만 5월 미리 구매한 경우가 많아 체감 수요는 더욱 떨어진 상황”이라며 “7월에도 유통업체들은 가격 인상에 나서겠지만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준모기자 / jmpark@snmnews.com

픽슨, 고품질 ‘파형강판’으로 수요 확보

국산 GI 사용 고품질 구현

세계 10국 이상 수출 확대

전남 광양시 소재 파형강판 제조 및 유통업체 픽슨(대표 정성만)이 내수 및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픽슨의 파형강판은 용융아연도금강판(GI)을 소재로 한 일반파형강판에 고강도 방사형 필름을 고주파 유도가열 공법으로 라미네이팅 시킨 제품으로 제품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또 방사형 외부 피복층은 내충격제로 제품 운반, 시공시 발생하는 파손 손상을 줄여준다. 픽슨은 고품질 파형강판을 통해 지난



2014년 러시아 아텍프림사와 34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중국 덕주성합전력교통공정(유)과 연간 1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서 픽슨은 덕주성함에 파형강판 설비와 기술을 이전하고 원자재를

매년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나라에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파형강판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에 대한 매출도 크게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4년 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과 함께 NT(신기술) 인증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획득했다.

이어 2012년 조달청으로부터 HPL강판을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았다. 2013년에는 중국 사강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재철기자 / parkjc@snmnews.com

중소 유통가공

전기료 피크타임제에 취약

중소규모 철강가공업체가 여름철 피크타임제 시행으로 어려워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사용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다른 시기에 비해 비싼 전기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에는 최대로 요금을 부과 중이다.

중소 유통가공업체들은 중견 이상의 업체들과 같이 전기료 최대 부과 시간대에 작업을 최소화 하다가 전기료가 적게 드는 시간대에 작업을 늘리는 시간별 조절을 할 수 없다.

중소 유통가공업체들은 작업 유지를 위해 여름철 전기료 최대 부과 시간대인 10~12시, 13~17시대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시간별로 작업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확보하거나 기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추가되는 인력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평소 시간대에 작업하고 있다.

결국 이들 업체는 전기료 최대 부과 시간대에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서 전기료 부담이 중견 이상 업체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업체 한 관계자는 “여름철은 중소기업에 어려운 시기”라며 “지금 여름철 전기료 부과체계로는 작은 업체일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철주기자 / cjoon@snmnews.com

취재안테나

미래 먹거리 찾아 머리 싸맨 데크 제조업체



박재철 기자 편집국 취재 1팀

최근 데크플레이트(이하 데크) 제조업체가 신규 먹거리 사업 발굴에 한창이다.

신규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올해 데크 제조업체는 국내 건설 물량 감소와 신생업체 등장으로 주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데크 사업을 준비했던 신생업체들이 정상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해당 업체들은 평균 3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데크 시장에 진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대다수 데크 제조업체는 실제 개선에 성공했지만 실제 건설 수주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는 원

자재 가격 인상으로 주수금액만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업체들은 생산설비를 증설을 미루고 사업다각화에 몰두하고 있다.

먼저 제일테크노스의 경우 신사업인 철강구조물 사업을 통해 제2 도약에 나섰다. 포스코의 고품질 후판용 소재 절단, 용접, 교정작업, 자동개선 가공 및 품질검사를 걸쳐 완성되는 고품질의 빌트업 형강 제품인 ‘Pos-H’ 형강을 제작하고 있다.

이어 다스코는 가드레일을 비롯한 도로안전시설물과 데크 생산 등 금속구조물 제조업에서 태양광이나 단열재 등의 신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윈드서비스를 하는 EPOC(설계·구매·시공) 사업을 비롯해 방울터널사업, 분양사업과 ESS(에너지저장장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스코는 올해 약 단열재사업으로 약 300억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사 제품인 단열재데크의 자체 보급과 함께 건축용 단열재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회사 한상원 회장은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정체와 더불어 기존 사업만 고집하기는 시장 환경이 급변했다”며 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회장의 기업 성장론은 붉은 여왕 효과(Red Queen Effect)와 일맥상통한다. 붉은 여왕 효과(Red Queen effect)란, 어떤 대상이 변화하게 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나 경쟁 대상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마는 현상이다.

세계적인 성장정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데크 제조업체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때다.

수요·연관

기아차 광주공장, 美 관세 부과 시 ‘직격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국내 자동차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시장 수출 비중이 높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다시 수입자동차 관세를 언급하는 등 미국이 수입차에 관세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유럽연합(EU)의 관세 장벽을 비판하며 “수입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미국의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 중 기아차 광주공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04년 12월 2세대 스포티지가 최초로 미국시장에 수출한 이래 현재 쏘울과 쏘울EV, 스포티지를 수출하고 있다.

작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쏘울 10

만9,625대, 스포티지 7만4,334대 등 총 18만3,959대가 미국시장으로 수출됐다. 이는 광주공장 전체 생산량 49만2,233대 중 37.3%에 달한다. 이처럼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25%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을 약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시장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판매가 줄면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운영에도 문제가 생긴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관련업체들도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연계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병연 스틸서비스센터(SSC)는 물론 자동차 부품업체 등 협력업체들은 물량 감소는 물론 매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모기자 / jmpark@snmnews.com

건설공사 계약액, 1분기 60兆 15.8% 급증

올해 1분기 민간 건설공사 계약액이 20% 이상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늘었다.

주체별로 공공은 17조1,000억원으로 1% 감소했으나, 민간이 대형 발전소 계약(5.3조원, 2건) 등의 영향으로 43조원을 기록해 24.2% 대폭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조경 포함)이 23.4% 증가한 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고 건축은 11.3% 늘어

난 3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건설공사 계약액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5,000억원(35.5% ↑), 51~100위 기업이 2조9,000억원(16.6% ↓), 101~300위 기업 4조9,000억원(1.9% ↓), 301~1000위 기업 5조2,000억원(0.2% ↑), 그외 기업이 18조4,000억원(8.2% ↑) 등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4조7,000억원, 비수도권이 18.8% 늘어난 3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성희원기자 / hhsung@snmnews.com

특수강, 기계산업 수요 증가 ‘호재’

특수강봉강 업체는 내수시장의 포화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노크하고 있다. 특히 기계산업의 수출 동향을 파악해 수요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기계산업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수요회복과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설비투자 영향으로 생산과 수출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수출은 반도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2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조선 등 국내 수요산업의 부진 및 SOC 예산 감축 등이 증가세를 제약할 우려가 있지만, 미국, 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와 신흥국 설비투자가 지속됨

에 따라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분기 기계산업(선박 제외)은 생산, 수출, 수입 모두 동반 증가하며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의 개발 투자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산업 호조에 따른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가 지속돼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미국, EU 등 선진국 역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 및 설비 투자 증가로 기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간 통상마찰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수출 증가세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송철호기자 / chsong@snmnews.com

놀리는 지붕, 태양광발전 고민 NO!!

수익률 잡고 방수시공은 “덤”입니다.

“연 최대 15% 이상 수익에 지붕방수 시공까지”

지붕리뉴얼 사업문의 | 070-4808-3758

지붕방수 시공과 태양광발전을 한번에!!!

에스아이패널이 제안드립니다.

- 1 무료 지붕 보수 및 임대사업**
 - ✓ 건물지붕을 임대해주시면
 - ✓ 지붕보수 후 발전소를 건립해 운영하겠습니다.
 - ✓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드리고
 - ✓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해드립니다.
- 2 지붕 태양광발전 시공**
 - ✓ 지붕 위에 발전소를 건립해 직접 운영 수익을 내세요!
 - ✓ 발전소 건립비용만으로 지붕 완전방수까지 해드립니다.
 - ✓ 1000kW 기준으로 총사업비 대비 연평균 15% 이상 수익률
 - ✓ 5년 만에 투자비 회수 후 20년 이상 수익이 납니다.

에스아이그룹